

# 군 간부의 다문화교육경험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Multicultural Education Experiences on the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f Military Officers

중앙승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김정희\*\*

Dept. of Social Welfare, Joong-Ang Sangha University  
Instructor Kim, Jung-Hee

##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is research seek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cultural education experiences and the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f military officers. The sample included 552 Republic of Korea Army officers and non-commissioned officers(NCOs) who were located in Gangwon-Do and Gyeonggi-Do.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SPSS 18.0 was used to perform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frequency analysis, differential verific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major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f the military officers and NCOs, including sub-factors, was above the mean level; in terms of the ranking per sub-factor, the scores were in the order of diversity, relationship, and universality. The experience frequency of the targets and the evaluation was lowest in the educational experience within the military, and the evaluations were in the order of public media, school, and military. Second, The differential verification,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ciology of the population and the existence of the multicultural educational experience, showed that the duration of education(personal factor), marital status(family factor), existence of a foreign relative(family factor), and existence of experience of managing multicultural personnel as soldiers under command(military-related factor)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dditionally, the existence of multicultural education through schools and public media lead to a significant difference i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but the existence of education

\* 이 논문은 김정희의 2018년 박사논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주저자, 교신저자: 김정희(nixyah@hanmail.net)

within the military did not lead to a significant difference. Third, The analysis of the influencing relationship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higher the evaluation of multicultural education through the military, school, and public media, the higher the multicultural acceptability. Therefore, this research proposes multicultural educational plans that may improve the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f military officers and NCOs as a way to establish a multicultural composition in the army.

**Key Words** : 다문화교육(Multicultural Education), 다문화수용성(Multicultural Acceptability), 다문화군대(Multicultural Military), 군 간부(Military Officer)

## I. 서론

오랜 기간 동안 단일민족 국가로 여겨져 왔던 한국사회는 세계화 및 다원화의 흐름 속에서 다양한 인종, 언어, 종교를 가진 다문화사회로 변화하였다. 다문화사회 현상은 아시아 국가 중 대만과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 경험을 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소속되어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나타나고 있다(차성란, 2009). 이러한 사회의 변화는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도 하지만 반면 이주민과 원주민 사이의 갈등이나 충돌로 인해 사회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한국사회에서 1990년 대 이전까지는 국제결혼이 흔치 않은 현상이었다(계선자·강혜경·정미선, 2009). 하지만 1990년대 초 한중수교 이후 농촌의 남성과 중국동포 여성들과의 결혼이 다문화사회의 전기를 마련하여 최근에는 지역의 경계를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사회가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신유경·장진경, 2010).

한국의 경우 국내 체류 외국인은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증가로 인해 일정수준 지속될 전망이다.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1년에 55만 명이었던 외국국적 동포가 2014년 70만 명,

2016년 77만 명, 2017년 84만 명, 2018년 87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sup>1)</sup>. 또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에 의하면 외국인 주민 자녀는 2016년 20만 명(남자 10만 명), 2017년 22만 명(남자 11만 명), 2018년 23만 명(남자 12만 명)으로 자녀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중 미취학아동, 초등학생, 중고생은 2016년 11만 명, 5만 명, 3만 명, 2017년 11만 명, 8만 명, 2만 명, 2018년 11만 명, 9만, 3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한국이 다문화사회로 변화하는 이유는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의 증가를 비롯해 외국국적 동포의 귀국, 외국인주민 자녀 등의 증가로 볼 수 있다.

한국사회의 다문화에 대한 관심은 한국 사회 여러 영역에서 갖게 되었는데 군대 역시 예외일 수 없다. 2010년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에 따르면 제 2 국민역은 “인종피부색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수행하는데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삭제하여 199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현역병으로 입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2010년 52명에 불과했던 다문화병사 수가 2011~2013년 690명 이었고, 2014~2016년 690명, 2015년 15,451명, 2031년에는 38,341명이 될 것으로 예측하

1)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의하면 연도별 한국 거주 외국국적동포 현황은 2011년 550,931명, 2012년 538,277명, 2013년 602,226명, 2014년 704,536명 2015년 754,427명, 2016년 775,715명, 2017년 841,308, 2018년 878,665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 있다(병무청, 2016). 다문화 가족의 출산율이 일반가정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을 고려해 볼 때 한국군은 줄어드는 병역자원에 다문화가족 자녀의 병역의무가 중요한 자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2030년에는 전체 군 병력의 5%가 다문화 장병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국방부, 2016).

변화하는 사회 현상에 따라 한국군도 이전까지는 경험해 보지 않았던 다양한 배경의 문화를 가진 병사들이 입대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나름의 노력들이 있었다. 다문화병사들의 원활한 복무여건 조성을 위한 다문화 장병 차별 금지 및 고충 우선 처리 규정을 정비하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과 「부대관리훈령」에 다문화 존중 및 교육 시행 조항을 추가하였다(진병규, 2018). 또한 2010년 병역법 개정을 시작으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다문화교육용 교재 제작, 2013년에는 다문화군대 대비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등 군 자체적으로도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에서 주관하는 다문화 관련 정책 자체가 이주민이 유입한 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사후처리식의 접근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성미애, 2011).

군은 상명하복의 위계질서에 의해 행동하는 보수적 집단으로 병사들 간 문제 발생 시 간부에게 책임 소재의 권한이 크다고 볼 수 있고, 개인적 특성을 비롯한 업무 수행 방식들 또한 다문화를 포함한 일반 병사들에게도 반영된다고 볼 수 있다. 즉, 병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은 스스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간부들의 노력으로 개선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군대의 다문화 현상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차이를 두지 않고 동등하게 대하는 다문화수용성은 군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최경일·조성심, 2017). 따라서 타문화를 수용해야 하는 다문화군대를 만드는데 군 간부

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한국군은 다문화군대에 대비하여 다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의 방향성과 교육 방법, 교육 콘텐츠 등에 대한 심층적 연구와 검증이 부족한 실정이다. 다문화교육은 평등교육을 목표로 하며 구체적인 내용으로 편견 해소, 소수집단의 인권보장, 차별과 편견을 제외한 평등 및 다양성을 강조한다(Sleeter & Grant, 2003).

현재 다문화병사의 수가 예전에 비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상근예비역으로 배치하는 경향이 있어 군 간부는 다문화병사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고, 그들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다문화군대의 준비상태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sup>2)</sup>. 따라서 군 간부는 그들과 다문화병사들 혹은 병사와 다문화병사들 사이에 타문화로 인한 이질감을 줄이고 서로에 대한 공감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문화수용성 향상을 위한 다문화이해 교육이 빠른 시일 내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군대에 대비한 국내의 다양한 연구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문화수용성(김만하, 2019; 진병규, 2018), 다문화교육(박홍호 외, 2013; 박성혁·모경환·김명정, 2009), 다문화인식과 태도(김정수·박진옥, 2015; 김심경, 2010), 다문화감수성(유승범, 2012), 다문화군대 대비방안(김영준, 2016; 조현웅, 2016; 나태중·노양규, 2014; 전은령·변상해, 2012; 정명호, 2013; 박안서, 2011; 김광익, 2009) 등 최근까지도 꾸준한 연구가 이어졌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 대부분은 다문화 장병 당사자이거나 장병 전체 혹은 군대 내 조직의 역할과 적응 등의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군대를 주제로 한 다문화교육경험과 다문화수용성 간의 관계를 보고자 했던 연구는 극히 소수였다.

다문화병사와 일반 병사들 사이에서 가장 밀접하게 교류하며 실질적 지휘와 통솔권을 가진 리더로서의 역할이 바로 간부이다. 또한 이들에게는 교육과

2) 군 간부 6명(4개 사단)과의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다문화교육의 실시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6명 모두 다문화에 관련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거나 있어도 경험의 정도가 매우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훈련을 담당하는 교육자로서의 직책이 있기 때문에 군 간부의 다문화수용성 향상을 위한 전문적 입장에서 다양한 학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다문화군대로 변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군 간부가 갖추어야 할 다문화수용성과 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다문화교육경험의 관계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개념적 정의

#### 1) 다문화수용성

다문화사회는 인종, 민족, 종교 등에 따라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사회 안에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다문화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는 각각 다른 배경의 문화를 가진 집단들 사이에 갈등, 경쟁, 거부 등의 현상으로 다변적 양상이 나타나기도 한다(최만식, 2013; 윤인진·송영호, 2009).

다문화수용성은 자신과 다른 구성원 및 문화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고 자신의 문화와 동등하게 인정하며 타인과 조화로운 공존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의미한다(민무숙 외, 2012). 안상수 외(2015)는 타문화의 구성원에 대해 차별이 아닌 상호 존중이라는 개념을 포함한 다문화주의에 대한 수용의 능력을 다문화수용성이라 정의하고, 동화주의와는 대비되는 개념이라 보았다. 하지만 다문화수용성은 그 정의가 아직 정확히 정립되지 않아 사회적 거리감(정명희·박외병, 2014; 이인숙·조주연, 2015; 한은경·서유진, 2020), 문화간감수성(김경호, 2013; 이수경, 2017; 소연희, 2018), 문화간유능성(김동환, 2010)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다문화수용성은 3개 차원과 8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안상수 외(2015)의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연구를 기준으로 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성은 다른 문화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갖지 않고 동등하게 인정하는 것이다. 하위요인인 문화개방성은 인종, 종교,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지역사회나 이웃으로써 다른 문화권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고 이러한 개방에 대한 긍정적 경향을 나타내는 인지적 신념을 말한다. 국민정체성은 국가 구성원들이 국민 됨의 기준이 무엇인지 규칙을 정하고 국민으로 누구를 받아들이는가가 핵심이다. 고정관념 및 차별은 타문화에 대해 잘못된 정보에서 비롯된 선입관과 타문화 자체로 인한 부정적 정서 및 감정을 의미한다.

둘째, 관계성은 타문화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으로 통합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맺고자 하는 것이다. 하위요인인 일방적동화기대는 이주민이 자신의 정체성은 버리고 주류국가의 문화, 관습, 전통적 가족 풍습, 언어 등을 이해하길 기대하는 것이다. 거부회피정서는 타문화 사람들과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향이며, 상호교류행동의지는 이주민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에서 차별 없이 호혜적인 관계를 맺고 실천하는 의지를 의미한다.

셋째, 보편성은 경제수준이나 문화 가치에 등급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세계의 공통된 구성원임을 의미한다. 하위요인인 이중적 평가는 출신배경에 대해 이주민을 차별적으로 평가하고 대인관계에 있어 선별적 관계를 맺으려는 경향이다. 세계시민행동의지는 인류애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거나 실천하려는 의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다문화수용성은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회에는 집단 사이에 갈등이나 경쟁, 거부 등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부정적인 정서와 감정을 갖지 않아야 한다. 또한 출신배경에 상관없이 타문화를 자신의 문화와 동등하게 인정하고 차별이나 편견 없이 그들과 호혜적인 관계를 맺고자 노력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 2) 다문화교육

다문화교육은 문화적·사회적·민족적 다양성을 지닌 사회 구성원들이 타문화 사람들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도록 고정관념과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다문화의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다. 다문화교육은 대부분 이주집단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다소 동화주의적 성격을 보여왔다. 하지만 최근 인권문제, 생태계 위기, 테러리즘 등의 거시적 차원의 현안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국가 간 연계가 급증함에 따라(Bennett, 2009; 김옥순 외 역, 2009 재인용) 이주집단 뿐만 아니라 원주민도 다문화교육의 대상이 되었다. 국내 연구자중 강혜경(2015) 역시 다문화교육은 다문화가정과 일반인 모두 교육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다문화교육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된다. 다문화교육의 대표적 학자인 Bennett과 Banks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Bennett은 가장 많은 다문화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에서의 다문화교육은 민주주의의 가치와 신념을 기초로 상호의존성이 높은 세계와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회 속에서 다원주의를 지지하는 교수학습 방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주류 문화권 밖에서 이주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류 문화권 사람들에게도 다문화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원주민과 이주민 모두에게 다문화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서로에게 존중과 배려를 가르쳐야 한다고 하였다(Bennett, 2009; 김옥순 외 역, 2009 재인용). Banks(2008)는 다문화교육을 성별, 인종, 종교 등에 따라 타 집단의 문화를 동등한 가치로 인식하고 편견을 줄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위해 지식, 태도, 가치를 교육하는 것을 다문화교육이라 정의하고, 상호간 문화에 대한 존중을 지식과 이해를 통해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즉, 개인이 타문화의 관점으로 자신의 문화를 바라보면

자기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견해이다.

다문화교육을 군대에 적용해 보면, 지휘관 대상의 다문화교육과 관련한 몇몇의 연구가 선행된 바 있다(김광익, 2009; 조기형·홍석조, 2010; 박용호 외, 2013). 하지만 한국군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오래전부터 다문화군대를 경험한 미국의 경우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으로 기회균등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sup>3)</sup>. 기회균등 프로그램은 최상위 의회(DEOC : Defense Equal Opportunity Council)에서 결정된 사항이 국방부의 지침이 되고, 국방부 지침은 관할구역 군성 장관에 의해 관리·책임의 의무를 진다. 또한 각각의 참모총장은 기회균등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하급 기관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다. 기회균등 프로그램은 차별 없는 군대 환경, 부대의 단결, 종교적 편의를 제공 하고 다문화군대를 통합하여 장병들은 미군 정부와 군 지도부에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경우 군 장병들의 다문화수용성 향상을 위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2014년 49명의 군 내부강사 양성을 시작으로 현역군인들이 다문화이해교육을 위한 군 내부강사로 활동 중에 있다.

모든 사람들은 자문화, 타문화, 주류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사회에서 살아간다. 군대 역시 직업으로써의 군 간부와, 일반병사, 다문화 병사가 함께 생활한다. 다문화 교육은 타문화에 대한 존중에 기초하여 상대 문화의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군대에서의 다문화교육은 군에서 필요한 지식과 태도, 가치교육을 기초로 문화적, 인종적, 신체적 특성이 다름으로 인해 겪게 되는 차별 및 편견을 감소시키고, 모든 장병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3) 기회균등 프로그램(Equal Opportunity Program): 미국방부는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서 보였던 전투력의 약화를 흑인병사의 인종차별에 대한 지휘관의 무관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판단하고 인종 간 갈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회균등 프로그램을 1971년에 도입하였다.

## 2. 선행연구 고찰

### 1)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군 간부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군 간부나 장병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다문화수용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한 이경민(2017)은 다문화수용성 연구대상 대부분이 학생이었고, 다수의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사, 다문화정책 공무원 등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주장으로 보았을 때 병사들을 지휘·관리하는 간부들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다문화군대 준비를 위한 다문화수용성 연구는 관심이 저조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군 장병 전체를 포함하고 군 간부와 역할이 유사한 보호직공무원과 경찰 대상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연구자별 개인요인, 가족요인, 군(직업) 관련요인을 중심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김만하(2019)는 육해·공군 간부의 다문화수용성 영향요인에 대해 연구하였다. 성별이 여자인 경우, 계급이 위관장교, 부사관, 영관장교 순으로 다문화수용성이 높았다. 다문화수용성 하위요인별 영향관계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다양성이 증가하였고, 학력이 낮을수록 보편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전사 장병을 대상으로한 양철호와 박상록(2017)의 연구에서 연령이 어릴수록, 계급이 낮을수록, 군 복무기간이 길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연구자보다 좀 더 다양한 변수로 장병의 다문화수용성을 연구한 학자도 있었다. 진병규(2018)는 외국인친척이 많을수록, 외국인친척과 만나는 횟수가 많을수록, 계급이 병사, 부사관, 장교 순, 학력이 대학재학중, 대학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원 이상 순으로 다문화수용성이 높았다. 또한 정현석(2019)은 장병을 대상으로 군 다문화태도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하위요인인 다문화장병에 대한 태도 요인에는 다문화가정과 교류가 있는 경우, 계급이

부사관, 장교, 병사 순으로 다문화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군대에 대한 태도는 종교가 불교/천주교, 기독교, 무교, 기타종교 순 이었고, 다문화가정과 교류가 있는 경우 영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병영정책에 대한 태도는 다문화가정과 교류가 있는 경우 영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학자는 다문화인과의 교류 여부 및 정도에 따라 다문화수용성의 영향력이 달라짐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법무부 보호직 공무원을 대상으로한 김정아와 정정희(2015)는 다문화수용성과 의미가 유사한 다문화인식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그들의 다문화 배경에 해당하는 가족, 친지, 친구가 있는 경우 다문화인식 전체와 하위요인인 개방성, 수용성, 존중성 모두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권현오(2018)의 연구에서는 다문화수용성 하위요인인 다양성선호도는 학력이 높을수록, 임용과정이 경찰대학, 간부후보생, 특채, 순경공채 순으로 다문화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포용성은 성별이 여자인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경력이 5년 이하, 16~20년, 11~15년, 21년 이상, 6~10년, 계급이 순경, 경장, 경감이상, 경사, 경위 순으로 다문화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들을 정리해보면 군 간부의 개인요인에 해당하는 성별, 연령, 학력, 다문화 친구와 가족요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 및 친척의 유무, 군(직업)에 해당하는 계급이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다문화교육경험과 다문화수용성과의 관계

다문화교육경험과 다문화수용성과의 관계만을 보고자 했던 연구는 드물었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을 포함한 다문화관련수업 경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등과 다문화인식, 문화간감수성, 다문화태도 등의 관계를 기술하고자 한다.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 실험연구가 대다수였다.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다문화교육경험, 다

문화교육을 실시한 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다문화 인식, 다문화감수성, 반 편견인식이 긍정적으로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최미숙·김경숙, 2008; 장인실·이혜진, 2010; 장인실·김명희, 2011; 한수진·정진경, 2012). 중·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다문화교육경험, 대중매체 경험, 가정에서의 다문화교육, 다문화교육 횟수가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금혜령, 2013; 이지영, 2013; 장연진·구혜영, 2013; 강운선, 2014; 정석원·정진철, 2012; 신희경, 2015; 박외자, 2016). 또한 대학생들은 그들의 다문화교육경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다문화관련수강 여부가 다문화수용성과 다문화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황성동·임혁·윤성호, 2012; 정명희·박외병, 2014; 신재희, 2015), 성인을 대상으로 한 민무숙 외(2010)의 연구에서도 다문화활동경험, 대중매체노출경험, 다문화관련교육은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수용성은 최근에 들어서야 소수의 연구가 발표되었다. 유승범(2012)의 다문화시대의 군 인력 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255명의 장병 중 부사관과 장교의 19.1%가 사회에서 다문화교육을 경험했고, 군대 내에서의 교육경험은 8.5%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다문화교육경험의 비율은 낮았지만 그들의 다문화교육경험은 다문화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교육의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양철호와 박상록(2017)의 연구에서도 특전사 장병이 입대 전에 다문화교육 횟수가 많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 진병규(2018)의 연구에서 장병이 다문화교육과 행사, 봉사활동, 동호회 활동 등의 다문화 관련 활동에 많이 참여할수록 다문화수용성이 증가하였고, 계급에 따른 다문화 이해교육을 강화하여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김만하(2019)의 연구에서도 장병들이 다문화교육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다문화수용성이 높았으며, 다문화교육경험은 다문화수용성의 관계성을 향상시켰다.

이상의 연구들을 요약해 보면 군대 내에서의 다문화 교육경험 비율이 경미했으며 아직까지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학교, 군대 등에서 다문화교육을 받거나, 다문화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경우, 대중매체를 통한 다문화교육을 경험하는 경우에 다문화수용성이 증가함을 일관적으로 보여주어 앞으로 군 차원에서의 다문화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I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자 및 자료수집

군 간부의 다문화교육경험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경기도와 강원도에 소재한 육군 간부들을 편의표집 하였다. 본 조사 실시 전 군 간부 21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진행하였고 신뢰도를 비롯한 문항의 수정과 보완 과정을 거쳐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 선정은 설문에 도움을 줄 20명의 부사관을 섭외하여 1인당 1~120부까지 모두 620부를 배부하였다. 설문을 실시하기 전 설문지를 전달받은 부사관들에게 비밀보장, 연구목적, 질문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설문에 응해줄 응답자에게 신중히 기록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본 조사는 2017년 7월 3일부터 8월 15일까지 실시하였다. 배부된 설문지 중 미회수 및 불성실한 답변을 한 68부를 제외하고 최종 552부를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 2. 연구문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군 간부의 다문화수용성 수준과 다문화교육경험 유무 및 평가의 정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군 간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다문화교육경험 유무에 따른 다문화수용성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군 간부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 3. 측정도구

#### 1) 종속변수: 다문화수용성

다문화수용성을 측정하기 위해 안상수 외(2015)의 다문화수용성척도(Korean Multicultural Inventory for Adult: KMCI)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6점 리커트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약간 그렇지 않다’ 3점, ‘약간 그렇다’ 4점, ‘그렇다’ 5점, ‘매우 그렇다’ 6점)로 총 35문항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문화수용성의 하위요인은 3개 차원과 8개 하위 구성요소로 되어있다. 다양성(15문항)은 타문화와 가치를 자신의 문화와 동등하게 인정하고 편견을 갖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하위요인은 문화개방성(4문항), 국민정체성(4문항), 고정관념 및 차별(7문항)로 되어있다. 관계성(11문항)은 통합을 이루고자 타문화와 가까운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으로 일방적동화기대(4문항), 거부·회피정서(3문항), 상호교류행동의지(4문항)로 되어 있다. 보편성(9문항)은 타 국민을 경제발전 수준이나 문화적 가치로 등급화 혹은 차별화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위요인은 이중적평가(4문항), 세계시민행동의지(5문항)로 되어있다. 다문화수용성의 원척도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93$ 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96$  이었다.

#### 2) 독립변수: 다문화교육경험

다문화교육경험은 군 간부가 군대, 학교, 대중매체를 통해 다문화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유무와 그에 대한 평가로 구분하였다. 다문화교육경험 유무는 세 가지의 다문화교육경험에 대해 한 가지 이상 평가한 경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세 종류의 다문화교육경험평가 문항에 체크를 하지 않은 경우 경험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다문화교육경험 평가는 설문지에 중복응답이 가능하며 군대, 학교, 대중매체 각각의 평가 사례수가 표본이 된다. 따라서 다문화교육경험 유무(n=552)와 다문화교육경험 평가(군대 n=162, 학교 n=230, 대중매체 n=336)에 대한 응답자의 표본 수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나누어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문화교육경험 평가는 조영달 외(2007)의 다문화가정 자녀교육과 관련한 인식과 실태조사 중 일반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양성을 군대 용어에 맞게 수정하였다. 하위요인은 군대 다문화교육경험(3문항), 학교 다문화교육경험(3문항), 대중매체 다문화교육경험(3문항)으로 총 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세부 내용은 다문화교육이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데 긍정적인 내용이었는지, 다른 인종, 민족, 다문화가정에 대한 내용은 흥미로웠는지, 혹은 이해에 도움을 주었는지로 되어있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군대 다문화교육경험 평가(n=162) Cronbach  $\alpha = .78$ , 학교 다문화교육경험 평가(n=230) Cronbach  $\alpha = .72$ , 대중매체 다문화교육경험 평가(n=336) Cronbach  $\alpha = .76$ 로 나타났다. 자세한 사항은 <표 1>에 제시하였다.

#### 3)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개인요인, 가족요인, 군 관련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세부적 사항으로 개인요인은 성별, 연령, 교육기간이고, 가족요인은 결혼기간, 외국인친척 유무, 군 관련 요인은 다문화병사관리 경험, 계급으로 설정하였다.

### 4. 분석방법

군 간부 552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다문화수용성을 알아보기 위해 SPSS 18.0을 사용하였다. 연구결



〈표 1〉 다문화교육경험 평가 하위요인별 문항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질문내용	신뢰도
군대다문화교육 경험 평가 (n=162)	1, 2, 3*	군대에서 받은 다문화교육은 다른 문화에 대하여 긍정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781
		군대에서 다루는 다른 인종, 민족, 다문화가정에 대한 내용은 재미있고 흥미로웠다.	
		군대에서 다른 인종, 민족, 다문화가정에 대한 내용은 그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학교다문화교육 경험 평가 (n=230)	1, 2, 3*	학교에서 받은 다문화교육은 다른 문화에 대하여 긍정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717
		학교에서 다루는 다른 인종, 민족, 다문화가정에 대한 내용은 재미있고 흥미로웠다.	
		학교에서 다른 인종, 민족, 다문화가정에 대한 내용은 그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대중매체다문화교육 경험 평가 (n=336)	1, 2, 3*	대중매체를 통해 접한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은 다문화에 대하여 긍정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764
		대중매체를 통해 접한 다른 인종, 민족, 다문화가정에 대한 내용은 재미있고 흥미로웠다.	
		대중매체를 통해 접한 다른 인종, 민족, 다문화가정에 대한 내용은 그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중복응답, \* 역방향

과를 도출하기 위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와 활용된 도구들의 신뢰도 검사는 Cronbach  $\alpha$  값을 통해 제시하였다. 둘째, 주요변수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다문화교육경험 유무에 따른 다문화수용성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t-검정과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Duncan의 사후분석을 진행하였다. 넷째,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5.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2〉

에 제시하였다.

개인요인의 성별은 ‘남성’ 507명(91.8%), ‘여성’ 45명(8.2%)이었다. 연령대는 ‘20대’ 402명(72.8%), ‘30대’ 103명(18.7%), ‘40대 이상’ 47명(8.5%)이었고, 교육기간은 ‘12년’ 204명(37%), ‘13~15년’ 188명(34.1%), ‘16년 이상’ 160명(29%)이었다.

가족요인의 결혼상태는 ‘미혼’ 385명(69.7%), ‘기혼(동거포함)’ 163명(29.5%), ‘이혼 및 사별’ 4명(.7%)이었다. 외국인친척 유무는 ‘있음’ 26명(4.7%), ‘없음’ 526명(95.3%)이었다.

군 관련요인은 다문화병사관리 경험이 ‘있음’ 68명(12.3%), ‘없음’ 484명(87.7%)이었다. 계급은 ‘부사관’ 450명(81.5%), ‘장교’ 98명(17.8%), ‘준사관’ 4명(.7%)이었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N=552)

변수		빈도	백분율	평균(SD)	
개인요인	성별	남자	507	91.8	
		여자	45	8.2	
	연령대	20대	402	72.8	27.91(6.34)
30대		103	18.7		
40대 이상		47	8.5		
교육기간	12년	204	37.0	13.80(1.69)	
	13~15년	188	34.1		
	16년 이상	160	29.0		
가족요인	결혼상태	미혼	385	69.7	
		기혼(동거포함)	163	29.5	
		이혼 및 사별	4	.7	
외국인친척유무	있음	26	4.7		
	없음	526	95.3		
군관련요인	다문화병사관리 경험	있음	68	12.3	
		없음	484	87.7	
	계급	부사관	450	81.5	
		장교	98	17.8	
	준사관	4	.7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1. 다문화수용성과 다문화교육경험의 일반적 경향

주요변수들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아래 〈표3〉에 제시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다문화수용성 전체 평균은 4.43점(SD=.66)이었다. 다문화수용성 세 차원 각각의 평균은 다양성 4.59점(SD=.76), 관계성 4.40점(SD=.80), 보편성 4.20점(SD=.71)이었다. 다양성 하위요인은 문화개방성 4.14점(SD=1.00), 국민정체성 4.45점(SD=1.07), 고정관념 및 차별 4.94점(SD=.84)이었다. 관계성의 하위요인은 일방적동화기대 4.26점(SD=1.09), 거부·회피정서 5.06점(SD=.90), 상호교류행동의지 4.04점(SD=1.12)이었다. 보편성 하위요인

인은 이중적평가 4.01점(SD=1.04), 세계시민행동의지 4.35점(SD=.98)이었다.

둘째, 다문화수용성의 차원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환산한 공식(안상수 외, 2015)을 적용하면 다문화수용성 전체는 68.62점, 하위요인은 다양성 71.80점, 관계성 68.00점, 보편성 64.00점 이었다.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진병규(2018)의 연구결과에서 다문화수용성 전체가 70.06점, 다양성 74.73점, 관계성 68.54점, 보편성 64.11점 이었다. 김환남, 이선애와 이은경(2013)의 일반인 대상은 다문화수용성 전체가 53.95점, 다양성 55.15점, 관계성 66.01점, 보편성 56.98이었고, 보육교사 및 예비교사의 다문화수용성 전체는 58.95점, 다양성 60.99점, 관계성 54.99점, 보편성 59.99점 이었다. 군대 다문화수용성은 일반인과 교사들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장병(병사포함) 전체와 비교했을 때는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셋째, 다문화교육경험의 경우 유무는 군대 162명

〈표 3〉 다문화수용성과 다문화교육경험의 일반적 경향(N=552)

변수	점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다문화수용성	① 다양성	1.47	6.00	4.59	.76
	문화개방성	1.00	6.00	4.14	1.00
	국민정체성	1.00	6.00	4.45	1.07
	고정관념 및 차별	1.00	6.00	4.94	.84
	② 관계성	1.36	6.00	4.40	.80
	일방적대화기대	1.00	6.00	4.26	1.09
	거부·회피정서	1.33	6.00	5.06	.90
	상호교류행동의지	1.00	6.00	4.04	1.12
	③ 보편성	1.67	6.00	4.20	.71
	이중적평가	1.00	6.00	4.01	1.04
	세계시민행동의지	1.00	6.00	4.35	.98
	전체(n=552)	1.97	6.00	4.43	.66
다문화수용성 (가중치)	① 다양성	71.80			
	② 관계성	68.00			
	③ 보편성	64.00			
	전체(n=552)	68.62			
변수	빈도(명)		백분율(%)		
다문화교육 경험 <sup>4)</sup>	군대다문화교육경험 유무	162		29.4	
	학교다문화교육경험 유무	230		41.7	
	대중매체다문화교육경험 유무	336		60.9	
	군대다문화교육경험 평가(n=162)	1.67	5.00	3.79	.79
	학교다문화교육경험 평가(n=230)	1.67	5.00	3.80	.68
	대중매체다문화교육경험 평가(n=336)	1.00	5.00	3.86	.69

(29.4%), 학교 230명(41.7%), 대중매체 336명(60.8%) 순이었으며 다문화교육을 한 빈도 경험하지 않은 비율도 24%이었다. 다문화교육경험 평가의 평균은 군대다문화교육경험 평가 3.79점(SD=.79), 학교다문화교육경험 평가 3.80점(SD=.68), 대중매체다문화교육경험 평가 3.86점(SD=.69)이었다. 즉, 군 간부들은 군대 내에서 다문화교육을 받은 경험이 가장 낮았고, 교육을 받고 난 후 교육경험에 대한 흥미도와 이해도를 나타내는 평가 역시 학교나 대중매체보다 군대가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 2.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주요변수에 따른 다문화수용성 차이

조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다문화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다문화수용성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t-검정과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아래 〈표 4〉에 제시하였다.

개인요인 중 교육기간이 다문화수용성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교육기간에 따른 다문화수용성의 차이는 13~15년 4.51점(SD=.63), 12년 4.44점(SD=.69), 16년 이상 4.32점(SD=.66) 순 이었다( $p < .05$ ). 집단

4) 중복응답

〈표 4〉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주요변수에 따른 다문화수용성 차이(N=552)

변수		빈도	평균(SD)	F(t)	Duncan		
개인요인	성별	남자	507	4.43(.66)	.255		
		여자	45	4.41(.71)			
	연령대	20대	402	4.45(.65)	.839	a	
		30대	103	4.36(.69)		a	
		40대이상	47	4.47(.76)		a	
	교육기간	12년	204	4.44(.69)	3.483*	ab	
13 ~ 15년		188	4.51(.63)	b		a < b	
16년 이상		160	4.32(.66)	a			
가족요인	결혼상태	미혼	385	4.45(.62)	3.929*	b	
		기혼(동거포함)	163	4.49(.74)		b	a < b
		이혼 및 사별	4	3.54(1.02)		a	
	외국인친척 유무	있음	26	4.68(.52)	2.48*		
없음	526	4.42(.67)					
군 관련요인	다문화병사관리 경험	있음	68	4.65(.54)	3.448**		
		없음	484	4.40(.68)			
	계급	부사관	450	4.44(.66)	.351	a	
		장교	98	4.38(.65)		a	
준사관		4	4.43(.66)	a			
다문화교육 경험 유무 <sup>5)</sup>	군대다문화 교육경험 유무	있음	162	4.48(.68)	1.135		
	없음	390	4.41(.66)				
	학교다문화 교육경험 유무	있음	230	4.52(.62)	2.74**		
	없음	322	4.37(.69)				
	대중매체다문화 교육경험 유무	있음	336	4.48(.66)	2.36*		
없음	216	4.35(.70)					

\* $p < .05$ , \*\* $p < .01$

간 세부적인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Duncan의 사후 분석을 실시한 결과 16년 이상보다 12년인 경우 다문화수용성이 더 높았다.

가족요인 중 결혼상태, 외국인친척 유무가 다문화수용성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결혼상태에 따른 다문화수용성의 차이는 기혼(동거포함) 4.49점(SD=.74), 미혼 4.45점(SD=.62), 이혼 및 사별 3.54점(SD=1.02) 순 이었다( $p < .05$ ). 집단 간 세부적인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Duncan의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혼 및 사별보다 미혼, 기혼(동거포함)인 경우 다문화수용성

이 더 높았다. 외국인친척 유무는 외국인친척 있음 4.68점(SD=.52), 없음 4.42점(SD=.67)으로 외국인친척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다문화수용성이 더 높았다( $p < .05$ ).

군 관련요인 중 다문화병사관리 경험이 다문화수용성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다문화병사관리 경험에 따른 다문화수용성의 차이는 있음 4.65점(SD=.54), 없음 4.40점(SD=.68)으로 다문화병사를 관리한 간부가 그렇지 않은 간부보다 다문화수용성이 더 높았다( $p < .01$ ).

5) 중복응답

다문화교육경험 유무 중 학교와 대중매체가 다문화수용성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학교다문화교육경험 유무는 있음 4.52점(SD=4.52), 없음 4.37점(SD=4.37)으로 학교에서 다문화교육을 경험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다문화수용성이 더 높았다( $p < .01$ ). 대중매체 다문화교육경험 유무는 있음 4.48점(SD=.66), 없음 4.35점(SD=.70)으로 대중매체를 통해 다문화교육을 경험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다문화수용성이 더 높았다( $p < .05$ ). 진병규(2018)의 연구에서도 장병 개인요인의 학력 사항이 대학원이상보다 대학재학인 경우, 가족요인의 친구 친척이 없는 경우보다 4~5명인 경우, 또한 접촉빈도가 없는 경우보다 주 1회 이상인 경우가 다문화수용성이 더 높았다. 군 관련요인은 계급이 장교보다 부사관이, 다문화교육 이수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 교육 이수 횟수가 없는 경우보다 3회 이상인 경우 다문화수용성이 더 높아 본 연구와 많은 부분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주는 함의는 교육기간의 경우 13~15년 사이는 대부분 부사관이고 이들은 장교와 준사관에 비해 최 일선에서 다문화병사를 포함한 모든 병사를 관리하는 계급이다. 또한 외국인친척과 다문화병사관리 경험 유무가 다문화수용성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것은 그들이 경험하는 다문화 접촉과 관련된다. 즉, 군 간부들이 다문화와 관련한 접촉이 많은 경우 다문화수용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외집단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접촉이 증가하면 이질적인 집단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인 인식으로 변화되어 정서적 연대가 형성되고, 자신의 집단으로 재평가하는 과정 속에서 차별과 편견이 감소한다는 Allport(1954)의 접촉이론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Allport(1954)는 의도치 않은 접촉은 오히려 타문화에 대한 편견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다문화와 관련한 경험의 유무에 앞서 교육의 질적 수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3.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 다문화교육경험 유무가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군 간부의 다문화교육경험 유무가 다문화수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독립변수인 다문화교육경험 유무의 군대, 학교, 대중매체를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표 5>에 제시하였다.

다문화교육경험 유무가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력의 모형 설명력은 5.1%였다. 종속변수인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족요인의 외국인친척 유무, 군 관련요인의 다문화병사관리 경험, 독립변수인 다문화교육경험 유무 중 학교가 유의미한 영향이 있었다.

다문화수용성에 영향력이 높은 변수들은 다문화병사관리 경험( $\beta = .131, p < .01$ ), 학교다문화교육경험 유무( $\beta = .106, p < .05$ ), 외국인친척 유무( $\beta = .087, p < .05$ ) 순 이었다. 즉, 다문화병사를 관리해본 경험이 있거나, 학교에서 다문화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외국인친척이 있는 군 간부일수록 다문화수용성이 향상된다고 볼 수 있다. 장병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조미성, 2014; 유승범, 2012), 학교에서 다문화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을 때 다문화수용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맥을 같이 하였다.

#### 2) 다문화교육경험 평가가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군 간부의 다문화교육경험 평가가 다문화수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독립변수인 군대다문화교육경험 평가, 학교다문화교육경험 평가, 대중매체다문화교육경험 평가를 각각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5〉 다문화교육경험 유무가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N=552)

변수	다문화수용성				
	B	$\beta$	Tol	Vif	
(상수)			4.726		
인구사회 학적특성	성별	-.002	-.001	.950	1.053
	연령	.002	.018	.493	2.028
	교육기간	-.039	-.100	.581	1.720
	결혼상태	.087	.060	.533	1.876
	외국인친척 유무	.272*	.087	.978	1.023
	다문화병사관리 경험	.265**	.131	.975	1.026
다문화교육경험	계급	-.022	-.013	.584	1.712
	군대다문화교육경험 유무	.004	.003	.836	1.197
	학교다문화교육경험 유무	.142*	.106	.744	1.345
	대중매체다문화교육경험 유무	.081	.059	.786	1.272
R <sup>2</sup>		.051			
Adj. R <sup>2</sup>		.033			
F		2.89**			

\* $p < .05$ , \*\* $p < .01$

첫째, 군대다문화교육경험 평가가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력의 모형 설명력은 19.6%였다. 종속변수인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군 관련 요인의 다문화병사관리 경험과 독립변수인 군대다문화교육경험 평가가 유의미한 영향이 있었다.

다문화수용성에 영향력이 높은 변수는 군대다문화교육 평가( $\beta = .400, p < .001$ ), 다문화병사관리 경험( $\beta = .161, p < .05$ ) 순 이었다. 즉, 군대에서 다문화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간부가 교육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학교다문화교육경험 평가가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력의 모형 설명력은 24.4%였다. 종속변수인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학교다문화교육경험 평가( $\beta = .486, p < .001$ )만이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었다. 즉, 학교에서 다문화교육을 받는 경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할수록 군 간부의 다문화수용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대중매체다문화교육경험 평가가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력의 모형 설명력은 17.6%였다. 종속변수인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대중매체다문화교육경험 평가( $\beta = .391, p < .001$ )가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었다. 즉, 대중매체를 통해 다문화교육을 접한 경험이 긍정적일수록 군 간부의 다문화수용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다문화교육경험 평가는 군대, 학교, 대중매체 모두 다문화수용성과 정적인 영향력이 있었다. 즉, 군대, 학교, 대중매체를 통해 받은 다문화교육이 흥미롭고, 다문화 가정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느낄수록 다문화수용성이 향상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군 간부(김만하, 2019), 군 장병(양철호·박성록, 2017), 교사(박선미·성민선, 2011), 청소년(정석원·정진철, 2012)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나 본 연구를 지지하였다.

〈표 6〉 다문화교육경험 평가가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N=552)

변수	다문화수용성											
	B	$\beta$	Tol	Vif	B	$\beta$	Tol	Vif	B	$\beta$	Tol	Vif
(상수)		3.926 <sup>***</sup>				3.456 <sup>***</sup>				3.406 <sup>***</sup>		
성별	-.133	-.043	.944	1.059	-.165	-.077	.924	1.082	-.158	-.064	.930	1.076
연령	.008	.083	.468	2.137	.000	-.004	.518	1.931	-.002	-.025	.475	2.104
교육기간	-.058	-.145	.607	1.649	-.023	-.062	.550	1.817	-.015	-.039	.577	1.733
가족 요인	-.005	-.004	.494	2.025	-.025	-.017	.539	1.854	.061	.043	.499	2.004
인구 사회 학적 특성	-.019	-.006	.947	1.056	.051	.018	.986	1.014	.022	.008	.965	1.036
다문화 교육경험 <sup>6)</sup>	.296	.161	.979	1.022	.158	.075	.981	1.020	.118	.059	.982	1.018
다문화교육경험평가(n=162)	-.102	-.059	.573	1.747	-.174	-.117	.548	1.826	.014	.008	.572	1.748
다문화교육경험평가(n=230)	.344 <sup>***</sup>	.400	.914	1.094								
대중매체다문화교육경험평가(n=336)					.442 <sup>***</sup>	.486	.981	1.019				
R <sup>2</sup>		.196				.244				.371 <sup>***</sup>	.964	1.037
Adj. R <sup>2</sup>		.154				.217				.155		
F		4.658 <sup>***</sup>				8.926 <sup>***</sup>				8.702 <sup>***</sup>		

\* p < .05, \*\* p < .01, \*\*\* p < .001

6) 중복응답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군 간부의 다문화교육경험이 다문화수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군 간부 552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질문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에 따른 자료들은 SPSS 18.0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근거해서 결론과 제언을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주요 변수들에 대한 수준은 군대에서 다문화교육을 받은 경험의 유무와 평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군은 다문화 군대 시대로 돌입한 현 시점에서도 군대 자체보다 학교나 대중매체를 통한 다문화교육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는 다문화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선택이 아닌 의무교육이 되었다<sup>7)</sup>. 본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군 간부 중 29.4% 만이 군대에서 다문화교육을 경험하였고 약 70%는 그렇지 못하였다. 또한 군대에서의 다문화교육경험에 대한 평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보아 우리 군은 아직 전문화된 교육 방법이나 군 간부들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한국군은 자체적으로 전담기구를 두어 해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군 간부의 다문화수용성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접근성이 좋은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연계이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병사들이 영유아기를 거쳐 아동청소년기를 보내는 동안 이용했을 확률이 높고 센터 또한 가장 근접한 위치에서 다문화 가정의 사례를 관리하였다. 따라서 타문화의 특성이나 가정환경 등의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군 간부에게 필요한 전문적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문화수용성 하위요인의 보편성 중 이중적 평가에 대한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즉, 군 간부들은 타국가의 경제발전 수준, 문화적, 종교적, 인종적 차이에 편견을 갖고, 영어권 언어를 선호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의 내용에 이들이 다문화병사를 관리함에 있어 선별적 우호관계를 맺으려는 태도를 갖지 않도록 군 특성에 부합할 수 있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다문화교육경험 유무의 차이검증을 통해 군 간부들이 경험하는 다문화접촉과 다문화수용성이 서로 영향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생태체계 관점에서 볼 때 군 간부의 성별, 연령, 외국인친척, 다문화병사관리경험 등의 개인적 특성들은 자신의 의지로 결정되기 보다는 자체적인 속성으로 바뀌기 어려운 요인들이다. 따라서 군 간부가 다문화군대에 적응하며 여러 체계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비교적 사회적인 편견과 정체성 혼란, 심리적 부적응 등이 일반병사보다 적잖이 노출되었을 다문화병사들과 스트레스 없이 서로 간의 문화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군 간부들에게 다문화교육이 전제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군대에서 다문화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교관들의 경우 경험과 지식의 한계로 정확하지 않은 다문화교육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군 간부들에게 군대에서의 교육이 다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고, 그에 대한 내용 또한 타 기관들에 비해 흥미롭지 않았음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군 간부에게 다양한 문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접촉의 기회를 증가시키고, 군대다문화교육이 보다 전문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학계에서의 실증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볼 때 지역사회 공공기관 및 대학교의 지원으로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

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약칭: 군인복무기본법) 제37조(다문화준중)에는 ① 군인은 다문화적 가치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인에게 다문화적 가치의 존중과 이해를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시행일 : 2020. 5. 27)



(교수), 다문화이해교육 전문강사, 다문화 가족 구성원 등의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양한 대중매체, 다문화 체험 및 활동 등의 다채로운 방식으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다문화수용성 향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Allport(1954)의 접촉이론을 적용하여 군 간부와 다문화가정 구성원들 간의 공적 접촉의 테두리 안에서 양 집단 간 깊은 접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두 집단이 함께 짝을 지어 공동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스포츠 게임을 하는 등의 교류 경험들은 서로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두 집단 간 이러한 경험은 군 간부들에게는 다른 인종과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고, 다문화가정에게는 또 다른 한국의 군대 문화를 이해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즉, 지역사회의 전문적 집단과의 협력으로 형식적인 접촉의 경험이 아닌 긍정적인 접촉을 통해 상호 호혜적 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현상을 다문화군대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셋째, 군 간부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다문화교육경험 유무 중 학교 다문화교육경험 유무만이 다문화수용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었다. 즉, 군 간부가 초·중·고·대학교 등을 다니면서 다른 인종이나 민족의 생활과 문화, 다문화가정 등에 대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다문화수용성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학교에서 다문화를 교육 받은 경험이 있는 것만으로 다문화수용성이 증가했음은 학교가 다른 기관보다 교육의 내용과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군대, 학교, 대중매체를 통해 익힌 다문화교육의 평가는 학교, 대중매체, 군대 순으로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학교 다문화교육의 핵심은 학교 내에서의 동료, 체험활동 혹은 최근의 외국인교사 등을 통한 직접접촉과 미디어 및 교과서를 이용한 간접접촉의 기회가 다수 주어진다. 또한 대중매체는 간접적인 접촉만

을 제공한다. 따라서 군대에서 그들의 다문화수용성을 향상하기 위한 대안으로 직접접촉과 간접접촉이 적절히 통합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군대의 특성을 고려한 다문화교육 콘텐츠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가 경기도와 강원도에 소재한 육군 간부였다. 설문이 이루어진 지역은 도시와 멀리 떨어진 곳으로 사회문화적 환경이 도시보다 열악한 전방 지역이다. 또한 최근 군 간부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곳으로 간부로서의 책임과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어 연구의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전국의 육군, 해군, 공군 등의 군 간부 전체를 대상으로 전방과 후방 부대를 포함한 포괄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연구에 사용된 다문화수용성과 다문화교육경험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척도였다. 특히 다문화교육경험은 청소년용으로 아직 성인 대상의 도구가 개발되지 않은 현실이다. 상명하복의 특수조직에 해당하는 군 간부에게 적용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한계가 따를 수 있다. 따라서 군대의 특수성을 고려한 일반인과는 차별화된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 참고문헌

- 1) 강운선(2014). 고등학생의 다문화교육경험 유형이 다문화수용성태도 유형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 대구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회과교육, 53(3), 31-49.
- 2) 강혜경(2015).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유아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9(3), 1-16.

- 3) 계선자·강혜경·정미선(2009). 다문화가족의 결혼생활 관련요인 분석: 용산구 다문화가족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3(3), 31-57.
- 4) 국방부(2016). 장병 다문화교육용 교재: 다문화시대 선진장군. 국방부.
- 5) 권현오(2018). 경찰관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6) 금혜령(2013).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다문화적 경험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7) 김경호(2013).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의 문화간 감수성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친밀감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사회복지교육, 22, 77-104.
- 8) 김광익(2009). 다문화사회 추세에 대비한 군복무 발전방향. 한국사회과학, 31, 85-101.
- 9) 김동환(2010). 이 문화적응 훈련에 관한 이론적 고찰. 경상논총, 3(1), 57-74.
- 10) 김만하(2019). 한국군 간부 다문화수용성 영향요인 연구: 다문화교육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성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1) 김십경(2010). 다문화가정 장병에 대한 현역병사의 태도. 상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2) 김영준(2016). 다문화가정 자녀 입대에 따른 군(軍)내 한국어 교육 방안. 한국교육연구, 4, 41-59.
- 13) 김옥순·김진호·신인순·안선영·이경화·이채식·전성민·조아미·최상호·최순종 역(2009). 다문화교육 이론과 실제, Bennett, C. I.(2009). Comprehensive Multicultural Education : Theory and Practice, 서울: 학지사
- 14) 김정수·박진옥(2015). 장교 후보생의 다문화 경험에 따른 다문화 인식 및 다문화군대에 관한 태도. 민족문화논총, 61, 121-146.
- 15) 김정아·정정희(2015). 보호직공무원의 다문화 인식과 인권감수성 관계 연구. 보호관찰, 15(2), 169-196.
- 16) 김환남·이선애·이은경(2013). 한국형 다문화수용성척도를 활용한 보육교사와 예비교사의 다문화수용성 분석. 한국보육학회지, 13(2), 123-144.
- 17) 나태중·노양규(2014). 다문화군대에 대비한 한국군의 병영정책 발전방안. 다문화교육연구, 7(4), 55-80.
- 18) 민무숙·안상수·김이선·선보영·이명진(2012).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 19) 민무숙·안상수·김이선·김금미·조영기·류정기(2010). 한국형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 개발 연구. 사회통합위원회.
- 20) 박선미·성민선(2011). 교사의 다문화교육경험이 다문화적 인식에 미친 영향. 사회과교육, 50(3), 1-15.
- 21) 박성혁·모경환·김명정(2009). 다문화군대와 다문화교육의 필요성. 다문화교육 연구와 실천, 1, 1-14.
- 22) 박안서(2011). 다문화 장병 입영에 따른 병영 환경 조성방안. 국방정책연구, 26(4), 177-207.
- 23) 박외자(2016). 청소년의 내적 발달자산과 인권 의식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4) 박용호·신혜연·배현경·조대연(2013). 군 지휘관 대상 다문화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위한 탐색적 모델 연구. HRD연구, 15(1), 57-81.
- 25) 병무청(2016). 병역자원현황(1996~2015). 병무통계연보.
- 26) 성미애(2011).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회통합정책에 관한 한-미 비교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3), 63-81.
- 27) 소연희(2018). 중등교사가 지각한 학교조직문화 유형, 교사-학생관계 교사효능감, 문화간감수성과 다문화교수역량의 구조적 관계. 교원교육, 34(3), 167-193.
- 28) 신유경·장진경(2010). 문화상호주의적 관점에서 본 베트남 다문화가족의 가족생활적용 사례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3), 109-122.

- 29) 신재희(2015). 예비중등교사의 사회자본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0) 신희경(2015). 고등학생의 다문화수용성에 관한 조사연구.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1) 안상수 · 김이선 · 마경희 · 문희영 · 이명진(2015). 국민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 32) 양철호 · 박상록(2017). 현역장병의 군 사고예방을 위한 다문화수용성에 관한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13(7), 1-15.
- 33) 유승범(2012). 다문화 시대의 군 인력관리 개선 방안: 장병들의 다문화감수성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이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4) 윤인진 · 송영호(2009). 한국인의 국민정체성과 다문화수용성.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09(1), 579-591.
- 35) 이경민(2017). 국내 다문화수용성 연구동향 분석.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6) 이수경(2017). 예비교사의 공감능력, 문화간감수성, 다문화수용성과 다문화효능감 간의 관계. 교원교육, 33(2), 263-281.
- 37) 이인숙 · 조주연(2015). 간호대학생들의 다문화수용성과 사회적 거리감에 관한 연구. 다문화건강학회지, 5(1), 1-9.
- 38) 이지영(2013). 중학생들의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39) 장연진 · 구혜영(2013). 농촌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영향요인 구조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5(3), 193-216.
- 40) 장인실 · 김명희(2011). Bennett 모형에 근거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 다문화 인식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교육연구, 50, 123-146.
- 41) 장인실 · 이해진(2010). 초등학생의 다문화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다문화교육연구, 3(1), 55-87.
- 42) 전은령 · 변상혜(2012). 다문화 군 조직 실태 및 조직문화 변화에 따른 정책 대안 연구. 한국벤처창업학회 학술대회, 4, 225-231.
- 43) 정명호(2013). 다문화환경 대비 한국 군 대응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4) 정명희 · 박외병(2014). 대학생의 다문화교육경험이 사회적 거리감과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충북지역 대학생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7(2), 81-105.
- 45) 정석원 · 정진철(2012). 청소년의 다문화교육경험과 사회적 친밀감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교육연구, 5(1), 51-68.
- 46) 정현석(2019). 군 장병의 다문화 인식과 태도분석에 따른 전력향상 방안 연구. 한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47) 조기형 · 홍석조(2010). 한국군 다문화군대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 신안보연구, 166, 133-166.
- 48) 조미성(2014).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9) 조영달 · 박윤경 · 이정우 · 이경수(2007). 다문화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인식 조사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50) 조현웅(2016). 미군의 다문화 군인관리 제도를 통해 본 한국 다문화 장병 관리 방안. 전략논단, 23, 99-125.
- 51) 진병규(2018). 한국군 장병의 다문화수용성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52) 차성란(2009). 다문화가정의 가정생활문화 통합의 지향성.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3(3), 85-101.
- 53) 최경일 · 조성심(2017). 군 간부의 자존감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직무만족과 군생활 적응을 매개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5(2), 375-383.
- 54) 최만식(2013). 교원과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차이와 영향요인 분석.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55) 최미숙 · 김경숙(2008). 다문화교육 활동이 유아의 반편견 인식 및 다른문화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17(2), 65-79.
- 56) 한수진 · 정진경(2012). 초등학생의 다문화경험

- 과 문화 간 감수성의 관계. 아동과 권리, 16(1), 173-194.
- 57) 한은경 · 서유진(2020). 정신건강복지센터 실습 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정신질환에 대한 차별행동, 태도,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효과. 학습자 중심교과교육연구, 20(2), 59-72.
- 58) 황성동 · 임혁 · 윤성호(2012).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한국사회복지학, 64(1), 125-150.
- 59) Allport, G. W.(1954). The nature of prejudice. Cambridge : Addison-Wesley.
- 60) Banks, J. A.(2008). An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 (4nd ed). Boston : Allyn & Bacon.
- 61) Sleeter, C. & Grant, C.(2003). Making choices for multicultural education : Five approaches to race, class, and gender (4nd ed). Hoboken, NJ : John Wiley & Sons.

- 투 고 일 : 2020년 02월 27일
- 심 사 일 : 2020년 04월 09일
- 게재 확정일 : 2020년 05월 14일